

달라진 '팬 문화'... 스타를 만든다

영화 '후회하지 않아'의 배우 무대 인사가 있었던 지난 8일 오후 6시, 배우 이영훈(21)과 함께 무대 인사가 열리는 광주 극장을 찾은 '서울 사람들'이 있었다. 이영훈의 팬클럽인 '훈바라기' 회장 등 10여 명의 팬이 광주에 함께 내려온 것이다. 이들은 14일 생일을 맞는 '훈남'(이영훈의 애칭)의 생일 축하를 비롯한 팬 사인회, 정모 등 스케줄을 짜고 섭외까지 담당했다. 아직 소속 사나 매니저가 없는 이영훈에게는 매니저나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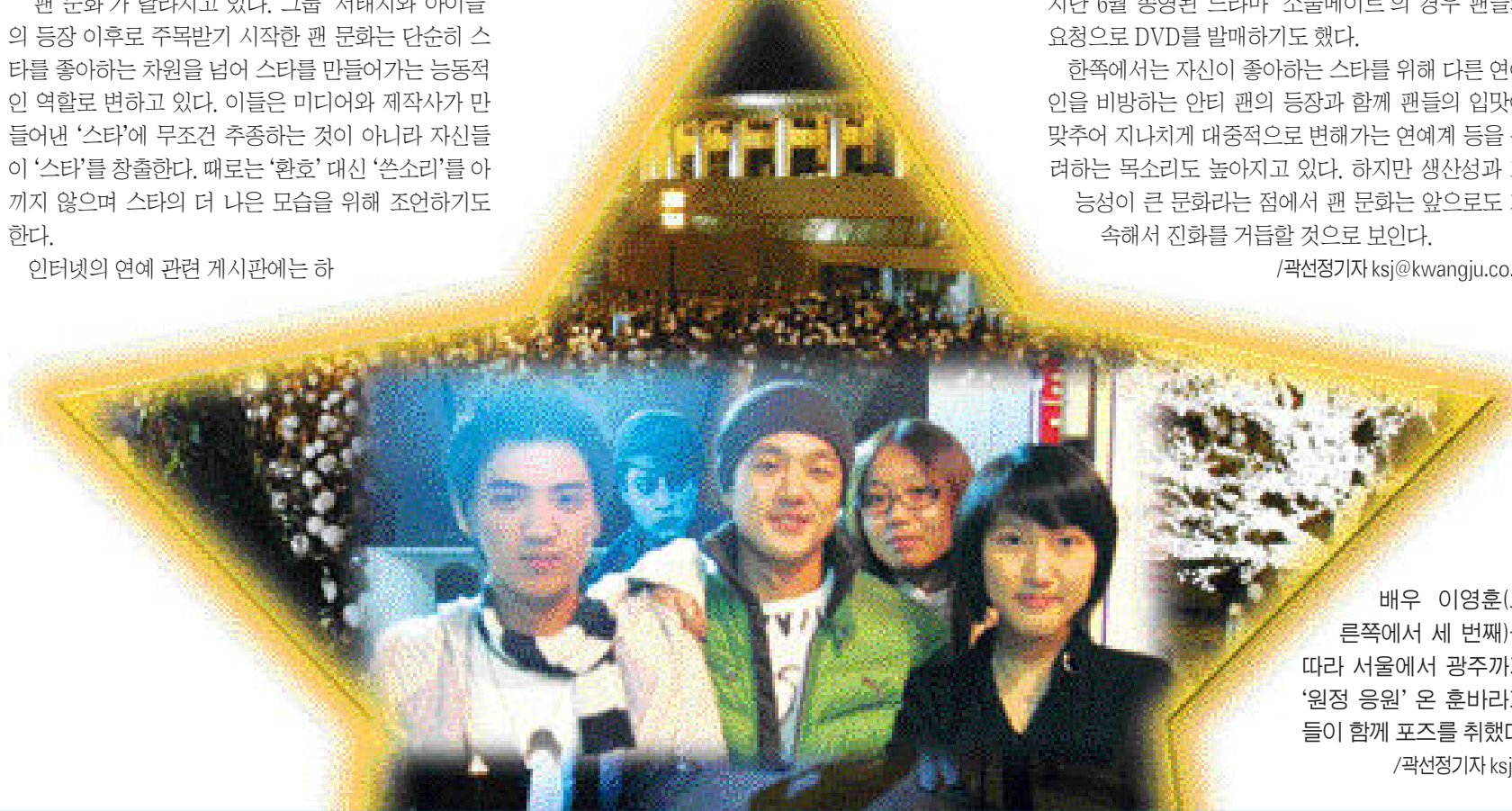
'훈바라기'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22)씨는 "내가 좋아하는 연기자의 여러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어 오히려 행운"이라며 "좋은 배우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후로 주목받기 시작한 팬 문화는 단순히 스타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스타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역할로 변하고 있다. 이들은 미디어와 제작사가 만들어낸 '스타'에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타'를 창출한다. 때로는 '환호' 대신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스타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조언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연에 관련 기사에는 하

루에도 수백 건씩 팬들의 의견이 올라온다.

회원 수 121만5천895명으로 대표적인 대중문화 나뉘터인 다음 카페 '연예인?! 이제 그들을 말한다'(http://cafe.daum.net/nowwetalk)에는 연예인들을 비평하는 글들이 매일 쏟아진다. 가수부터 배우, 개그맨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불문한 모든 연예인들이 비평의

맹목적인 추종서 탈피 스케줄 짜고 섭외까지 쓴소리 등 조언도 적극



배우 이영훈(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따라 서울에서 광주까지 '원정 응원' 온 훈바라기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윤계상 "드라마 복귀 신고합니다"

SBS '사랑에 미치다' 출연

최근 병장 재대한 윤계상(28)이 내년 2월 첫 방송하는 SBS TV 주말드라마 '사랑에 미치다'(극본 권기영, 연출 손정현)로 복귀 신고식을 치른다. 이 드라마에는 일찌감치 이미연(35)이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게임의 여왕' 후속으로 방영될 '사랑에 미치다'는 결혼식 당일 자동차 사고로 연인을 잃은 여자가 세월이 지난 뒤 연인을 죽게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

윤계상은 서진영(이미연 분)과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는 김재준 역을 맡았다. 김재준은 파열력을 꿈꾸며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한 남자를 죽게 되는데 그 남자가 바로 서진영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윤계상은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게 돼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지 모른다"면서 "군에 있을 때 드라마를 보며 '내가 저 인물을 연기하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탐나는 배역들이 많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몰래 연기연습을 한 적도 있다"며 웃었다.

이어 "김재준이라는 인물에 반해버렸다.

아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겨내려 애쓰는 그의 삶과, 지독한 운명에 따른 슬픈 사랑 이야기에 아직도 가슴이 시려온다"며 "연기를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 그대로 간직하며 연기를 통해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기그룹 god 출신의 윤계상은 2004년 SBS TV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을 통해 연기자로 변신했으며 같은 해 영화 '발레교습소'의 주연을 맡아 백상예술대상 신인남우상을 수상했다.

한편 여주인공을 맡은 이미연은 이 드라마를 통해 KBS 2TV '명성황후' 이후 5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10 BOX OFFICE

영화 (단위: 평)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11만2천	47만2천
2	Mr.로빈 고시기	9만3천300	390만700
3	해바라기	4만8천200	123만7천300
4	저스트 프렌드	4만4천100	13만1천300
5	판의 미로-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3만4천700	41만5천500
6	쏘우 3	2만4천400	32만5천
7	디피터	1만4천400	72만4천300
8	스텔업	1만4천200	39만5천400
9	그해 여름	1만3천100	30만7천200
10	탐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3D	1만2천900	2만7천800

(자료제공:필름 2.0)

TV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주몽	MBC	43.4
2	소문난 칠공주	KBS2	42.7
3	열아홉 순정	KBS1	38.4
4	황진이	KBS2	23.9
5	연개소문	SBS	21.5
6	개그콘서트	KBS2	21.3
7	대조영	KBS1	21.2
8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20.4
9	있을 때 잘해	MBC	19.9
10	상상플러스	KBS2	19.5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가문의 부활	코미디
2	괴물	드라마
3	캐리비안의 해적2: 망자의 함	액션
4	진혹한 출근	스릴러
5	잘 살아보세	코미디
6	폭력씨를	액션
7	마이애미 바이스	액션
8	BB프로젝트	액션
9	천하장사 미돈나	코미디
10	할로우 맨2	액션

(자료제공:씨네타운)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비림만 비림만	김종국&SG워너비
2	그녀가 울고 있네요	가비 엔제이
3	사랑가	SG워너비
4	머스트 해브 러브	SG워너비&브라운아이즈걸스
5	까만 안경	이루
6	거리에서	성시경
7	소리쳐	이승철
8	나를 잊지마	미야
9	사랑	부활
10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이승환

(자료제공:맥스뮤직)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부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어린이재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주CBS

일본선교여행

=꽃모리-파부스헤른스-시메베리-미토-경부

일본선교를 위한 비전과 도전

일 : 1월 14일(토) 15일(일) 16일(월) 2차 2009년 1월 25일(토) 26일(일)
 2차 4월 11일(토) 12일(일) 13일(월) 4차 2009년 1월 22일(토) 23일(일)
 모집인원 : 80명(선착순)
 참가금액 : 1차 155만원 2차 145만원 (상주지 오금)
 후원금 : 100,000원 (재정확소시 후원불가)
 입금계좌 : 공주은행 139-127-005137 (예금주:기독교 광주연합회)
 접수문의 : 062-057-6500
 주 : 최 / 광주CBS

광주CBS의 '일본선교여행'은
 2009년 1월 14일(토) 15일(일) 16일(월) 2차 2009년 1월 25일(토) 26일(일)
 2차 4월 11일(토) 12일(일) 13일(월) 4차 2009년 1월 22일(토) 23일(일)
 모집인원 : 80명(선착순)
 참가금액 : 1차 155만원 2차 145만원 (상주지 오금)
 후원금 : 100,000원 (재정확소시 후원불가)
 입금계좌 : 공주은행 139-127-005137 (예금주:기독교 광주연합회)
 접수문의 : 062-057-6500
 주 : 최 / 광주CBS

예금주:기독교
 광주연합회
 예금주:기독교
 광주연합회
 예금주:기독교
 광주연합회

SHIANA
 예금주:기독교
 광주연합회

포항남부
 예금주:기독교
 광주연합회
 예금주:기독교
 광주연합회